

클래식 전도사 최은규가 전하는 클래식과 친해지는 법

# “많이 들으면 악기소리 구분 흥미 가지면 어렵지 않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객원기자 등 활동 활발  
광주문화예술포럼 기획공연  
‘춤추는 클래식’ 해설 나서  
삶 채워 줄 취미 ‘강력 추천’

“클래식은 많은 공부와 필요한 음악이  
지만 한번 접하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존재예요. 우리 삶을 일깨워  
주고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음악입니다.”  
음악평론가 최은규(여·47)씨는 각종 음  
악회의 해설을 맡아 클래식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도사다. 최근 광주문화예술포럼에  
서 열린 ‘춤추는 클래식’ 공연에 해설자로  
참석한 그는 “클래식은 고전하고 비슷해  
진해지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얻는 게 많은 음악이다”  
고 말했다.  
최씨는 서울예고와 서울음대에서 바이  
올린을 전공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음악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서양음악학에  
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이후  
10여년간 연주활동을 한 그는 2001년부터  
는 부천필의 제1바이올린 부수석으로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에 참여했다. 특히  
화제가 됐던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회의  
프리코서트 레처와 영상물 감상회 해설을  
맡으면서 말러 교향곡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클래식 음악이 너무 길고, 들었을

때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 지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듣다  
보면 하나씩 악기들이 구별되면서 흥미가  
생길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  
면 맛을 즐길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요.”  
그는 클래식 전문 필자로도 활발한 활동  
을 하고 있다. 1993년 부천필 정기연주회  
의 프로그램 노트를 기고한 게 시작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월간 ‘객석’의 고정  
필자로 음악칼럼을 기고 중이다. 또 각종  
음악 전문 월간지와 일간지, 네이버캐스트  
등에서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  
며 연합뉴스 클래식 음악 전문 객원기자로  
국내 주요 음악회의 평론문을 기고한다.  
방송 역시 그의 활동 분야 중 하나다.  
2010년 KBS 제1FM의 ‘출발 FM과 함께’  
의 ‘최은규의 클래식 깊이듣기’를 시작  
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그는 현재 평화방  
송 ‘FM음악공간’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클래식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다.  
또 예술의전당 음악아카데미를 비롯해  
국제갤러리와 금호갤러리, 부천필과 함께  
하는 음악감상반, 서울시향의 ‘콘서트 미  
리 공부하기’ 등에서 클래식음악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각종 음악회의 음악해설

가로 활동중이다.  
바이올린 연주자에서 음악 평론가로 변  
신한 것에 대해 그는 “바이올린은 예민한  
악기다. 연주보다는 해설이 나에게 더 맞  
는 것 같다”며 “공연이나 음악을 해설하  
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해설을 하다보  
니 음악을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어 “연주만 할게  
아니라 청중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고 곡에  
대해 어떤것을 궁금해 하는지 알려줄 다  
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느꼈다”  
고 덧붙였다.  
“강의를 하다보면 부부가 같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클래식은 나  
이를 들어가면서 삶을 채워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취미생활로도 추천합니다. 또, 클  
래식은 인문·자연·문화 유산 중 하나로  
고대와 같은 고전을 읽어야 하듯이 클래식  
역시 들어야 하는 음악이예요. 오히려 읽  
어야 하는 책보다는 일단 들리는 음악이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통해 더  
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바란다”며 “앞으  
로도 클래식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자자 ej6621@kwangju.co.kr



## 18일 광주 금호아트홀

목관 5중주 뷔에르 앙상블의 썸머  
콘서트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이베르의 ‘목관오중주  
를 위한 세 개의 소품’ 시작으로 조  
르주 비제의 ‘카르멘 판타지’,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테오도  
르 블루머의 ‘목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작품 52’가 이어진다.  
젊은 목관 5중주 뷔에르 앙상블은  
리더인 클라리넷 조성호를 주축으로,  
플루트 유지홍, 오보에 고관수(게스

트, 바순 이은호, 호른 주홍진 등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솔리스트들로  
2013년에 결성됐다.  
뷔에르(vere)는 라틴어로 진실한,  
진짜의(real) 뜻으로 진정성 있는 실  
내악 음악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리더인 클라리넷리스트 조성호는  
2017년 일본 최고의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  
석으로 선발됐으며 멤버 전원이 우리  
나라 주요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활동중이다.  
관람료 일반 2만 원, 학생 1만 원. 문  
의 062-360-8437.  
/전문기자자 ej6621@kwangju.co.kr

## 맛있는 뮤지컬 ‘셰프’ 내일 전남문화관광재단 무료 공연

전남문화관광재단은 15일 오후 3시 무  
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공연 ‘뮤지컬-셰프’를 무  
료로 선보인다.  
‘뮤지컬-셰프’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비트박스과 아카펠라,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담은 퍼포먼스 뮤지컬로 2011년  
‘비밥’이란 타이틀로 초연해 큰 사랑을 받  
아왔던 공연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작품  
이다.  
특히 특수효과나 녹음없이 배우들이  
100% 라이브로 비트박스를 선보이고 공  
연 중 관객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는 등 배  
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관객참여형  
뮤지컬로 감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0일 오후 7시30분에는 한소  
리회의 ‘헨젤과 그레텔’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단체예약 및 기타사  
항은 남도소리울림터(061-981-02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셰프’

## 광주문화재단 ‘3분 다시마’ 문화다양성 단편영화 공모전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를 통한 문화다  
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단편영  
화 공모전 ‘3분 다시마’(3분의 다양한 시각  
을 마주하다)를 진행한다.  
‘3분 다시마’ 공모전은 ‘문화다양성 보  
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하  
나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3분 내외 단편  
영화를 모집한다.  
작품 형식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함축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단편영화로 작품분  
량은 3분 내외다.  
1인 1작품 출품 가능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품할 수도 있다.  
대상에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20개 작품에 총 9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당선작은 내년도 지방공무원교  
육원 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을 개설해 교육 자료로 쓰이는 등 지속적  
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9월 20  
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문의 062-670-  
7468.  
/박성천기자 skypark@

## 페넬로페 크루즈 식발 열연 ‘내일의 안녕’

### 광주극장 8월 개봉작 다채

8월 광주극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오는 17일에 개봉하는 ‘공범자들’  
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  
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다. 최승  
호 감독 특유의 역동적인 취재 방식을  
통해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  
감 있는 촬영과 사건의 요지를 전하는  
긴박감 넘치는 편집을 통해 상업영화  
못지 않은 재미를 선사한다.  
같은 날 개봉하는 ‘내일의 안녕’은  
남편과의 별거 중 찾아온 시한부의 삶  
속에서도 불행의 시간에 허덕이는 대  
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보듬어주던 ‘마그다’(페넬로페 크루  
즈)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면서, 그녀  
의 운명을 건 용기 있는 선택을 그린  
감동 드라마이다. 페넬로페 크루즈의  
식발 투혼을 마다 않은 독보적인 열연  
과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요소들로 ‘나다운 삶’을 산다는 것



‘내일의 안녕’

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24일 개봉하는 ‘파리 시정 앞에서의  
키스:로베르 두아노’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사진작가이자 파리를 대표  
하는 예술가인 로베르 두아노의 일상  
을 그의 손녀, 친구들 그리고 뮤즈의  
목소리와 함께 솔직하게 기록한 다큐  
멘터리다. 사진작가 두아노가 파리의  
길모퉁이 작은 곳곳을 렌즈에 담으면  
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  
다운 미장센과 함께 담아 감동을 선사  
한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자 ej6621@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총합동 전합동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볼포화지방산(울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